

隱凝鬼自惡時民怨於

沙里院支局特派記者

글이

分 誘惑を サモス은 말 立ス 의업스되 美人의資格을評計 아周密코자하면 足을等開討 보지는못할것이다

大禍를바닷스니 이것이이르 는비邊足이다 지급그山來를 朱宮에들어온本 美貌以外職 死』는잇슬듯한일이라이로因 司の宋官中에分離端の發生計 ,处台州漢族婦女七蒙古女子의 大足과달음물보이라하야 꿈 禁令도行刘吴司州되었스나 脳色の中國에가득하였다 世 캡은무성은것이라 中國女子 가례를鶥로녘이지안홀션아니 라도리혀小足을織弓이라자랑이中來한世점이다 하고大足을延船이라조롱하야 朝代
電行
ライン
サイン
サ 직한것은 다아는바와가치品

近의일이다 ◇歐米美人은 天井에매달 | 가刻気中 나히아즉 長成計 려잇스면 足에口唇이나接할 기前에 「오오셀」市에잇는어 만하다하나 이것은吳常한感 느미阿历에 够人이되야서 **學을가짓돈詩人「伍드리르」 발이어역본主婦를誘惑한일이** 의말이라 通例로보기어렵고 잇섯다 이小說家에게는 발 佛路寺園の 裸足舞跳力盛行 | の天人生、의骨節品 些の天宇 社後 関語散散計 ニテョルム

하라면 『千金之軀』라하고

外의短麗[비라 : 섹수알리스] 에 芥誕보는이야기가우숩고 는데 우리는외씨가른발을발 お니 얼골의 발과갓튼셈이 또한우숩다할것이다 우리해 리표하与이든拉路라할가 우 리의婦女는 手斗桶面以外에 몹을남에개보이지아니하되 足部の對計の特制吸圧計長又

◇一七三四年에나爿 一八 〇六年에 今은 佛閣四小親家 의大嗣임을 생 고 지기시 - 「불토느」라는 사람은 어릿을 배부터 어엿본女匠과 본 女融에 對하야 敏感을

聲討

全

治

治



4

70,

衛

第

의

杏

食後

华

立利益

0

오衛生的の

煉齒

飅

位次定国の協

